

종합

# 유럽發 쇼크 확산 금융시장 ‘패닉’

## 코스피 37P 급락·환율 이틀새 40원 급등 외국인 사상 최대 1조2000억 순매도

유로존 국가들의 재정위기에 대한 우려가 확산하면서 국내 금융시장이 연이날 뒤편사를 맞았다.

7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전날보다 14.1원 뛰어올랐고, 코스피지수도 2.21% 내려앉았다.

◇ 증시 ‘심리적 공황’ 우려=코스피지수는 37.21포인트(2.21%) 급락한 1,647.50에 거래를 마쳤다. 코스닥지수도 9.52포인트(1.87%) 하락한 499.71에 마감했다.

외국인들이 역대 최대 규모인 1조2370억 원 가량 주식을 순매도하면서 위험자산 기피 심리가 급격히 확산됐다.

사들이 본격적으로 자금을 송금하기 위해 유가증권 매도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해외증시도 일제히 약세를 보이고 있다. 일본 닛케이지수는 3.1% 하락했으며 중국 상하이 종합지수는 1.56% 떨어졌다.

안전자산 선호심리가 강해지면서 채권 시장은 강세로 돌아섰다. 지표물인 5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전날보다 0.06%포인트 하락한 4.37%를 기록했으며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0.10%포인트 내린 3.68%를 기록했다.

◇ 환율 이틀새 40원 상승=유럽 재정위기 여파로 원·달러 환율은 이틀 연속 급등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전날보다 14.10원 오른 1,155.40원에 마감했다. 환율은 전날 25.80원 급등한 데 이어 이날까지 이틀동안 40원 가까이 상승했다.

국내 증시도 급락세로 출발하자 환율은 1,170원대 턱밑까지 오르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올해 들어 진행된 환율 하락(원화 강세) 추세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일단락된 것으로 진단했다.

◇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듯=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단기간에 해결될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그리스의 재정 문제가 스페인 등 다른 유럽 국가로 확산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시장을 강타하고 있는데, PIIGS(포르투갈·이탈리아·아일랜드·그리스·스페인) 국가들의 재정 적자가 쉽게 해소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당국도 이번 사태의 진행상황에 촉각을 세우면서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금융감독원과 공동으로 비상금융공동대책회의를 개최해 이번 사태에 따른 국내의 금융시장 영향을 평가하고, 향후 대응방안을 점검했다.

## 민주 丁-鄭 지방선거 손 잡다

### 정동영 공동 선대위원장 수락 손학규·김근태 고문도 협력

민주당 정세균 대표와 정동영 상임고문이 7일 조찬회동을 갖고 6·2 지방선거 공조를 다짐했다.

노영민 대변인에 따르면 이날 아침 조찬회동에서 정 대표는 정 고문에게 “6·2 지방선거에서 명실상부한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했고, 이에 정 고문은 “당연하다”며 “필요로 하는 곳에는 빠짐없이 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정 대표는 이어 “많은 사람이 둘 사이의 관계에 대해 이런저런 말을 하는데 우리는 항상 협력할 대상이지, 반복할 대상은 절대 아

니라는 것을 확신한다”고 말해 본격적인 관계개선 노력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이날 정 대표는 또 정 고문에게 공동 선거대책위원장을 제의했고, 정 고문은 수락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정 대표는 손학규, 김근태 상임고문과 차례로 만나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로써 민주당의 지방선거 체제는 정 대표를 중심으로 세 명의 상임고문이 공동선대위원장으로 후보 지원에 나서는 것으로 정리됐다.

여성 몫 선대위원장은 장 상 최고위원이 내정된 상태다. 민주당은 9일 선대위를 발족할 예정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김대식 후보 “순천 정원박람회 지원 이끌겠다”

한나라당 김대식 전남지사 후보가 7일 오전 순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순천 국제정원박람회는 국제적인 약속인 만큼 반드시 성공 개최가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산림청 등 정부부처에서 논의된 예산이 확실시 반영될 수 있도록 순천시와 정부 사이에서 가교 역할을 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 “지금 민주당은 간판뿐 속은 열린우리당”

### 동교동계, 정세균 지방선거 지원 요청 거절

동교동계가 민주당 정세균 대표의 6·2 지방선거 지원 요청을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교동계 대변인 역할을 하고 있는 장성민 전 의원은 7일 “지난 4일 정 대표가 동교동계 좌장 격인 권노갑 민주당 전 고문에게 전화를 걸어와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호남에서 무소속 후보들이 약진하는 등 상황이 여의치 않다. 동교동계가 호남에서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 가급적 많은 동교동계분들과 5일 점심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에 권 전 고문은 한광욱·이철·남궁진·이훈평·유철상·장성민 전 의원 등 동교동계 인사들과 4시간여 동안 논의를 거친 뒤

정 대표의 제안을 ‘정중히’ 거절했다. 권 전 고문은 “늘 민주당을 위해 살아온 우리가 지방선거라고 해서 특별히 나설 이유가 없고 힘도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장 전 의원은 “그동안 정세균 대표는 공천 과정뿐 아니라 모든 것에서 민주당을 사당화하려 하면서 당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동교동계는 항상 민주당을 격정하고 민주당의 6·2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역할을 하겠지만 정 대표가 당을 사당화하려는 것에는 협력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동교동계는 지방선거 후 민주당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꿔 정체성을

회복하는 데에 힘을 쏟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동교동계 모임에서는 정 대표의 당 운영 방식이 도마에 오르면서 “정 대표와는 밥도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격한 반응이 터져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참석자들은 “지방선거가 ‘정세균 자기 사람 심기’로 변질돼 곳곳에서 아우성인데 우리더러 나서달라는 건 책임을 나눠 갖자는 얘기밖에 안 된다” “광역단체장 후보들만 해도 거의 다 친노(친노무현), 386 아니냐” “지금 민주당은 간판만 민주당이지 속은 열린우리당이다”라는 등 감성적인 반응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월드컵 선전 기원 ‘16강 막걸리 대회’

농림수산식품부는 10일 서울 중구 남산한옥마을에서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이 ‘2010 남아공 월드컵’ 16강에 진출하기를 기원하는 ‘16강 막걸리 선발대회’를 열고 7일 밝혔다.

주류 전문가 등 심사위원 23명이 각 지역 대표 막걸리의 맛과 향 등을 평가해 16종의 우수 막걸리를 뽑는다. 일반인들의 인기투표 결과도 선발 평가점수에 반영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대회를 위해 4월부터 전국 시·도 주관으로 예선전을 통해 지역별 대표 막걸리 32종을 선정할 바 있다.

행사에서는 3월 실시한 막걸리 전용 잔 공모전에서 뽑힌 8종의 입상작에 대해 시상도 하고 입상작을 바탕으로 전문가들이 제작한 16종의 막걸리 전용 잔도 공개 전시된다. 축구 대표팀의 선전을 기원하는 술북 개봉식, 막걸리 제조과정 체험 행사, 막걸리 카테일쇼, 32종 막걸리 전시·시음회 등의 부대행사도 마련된다. 농식품부는 축구 대표팀이 16강에 오르면 ‘8강 대표 막걸리’도 선정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 시설

### 취업난에, 학비 연체에... 활로 없는 지방대생

광주지역 대학생들의 학자금 연체가 1년 새 무려 40%나 증가했다고 한다. 가뜰이나 취업이 안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대학생들이 대출 학자금마저 제 때 갚지 못하는 ‘이중고’에 허덕이고 있는 것이다.

‘등록금 인하, 청년실업 해결을 위한 광주전남정책포럼’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지역 대학생의 대출 학자금 연체액은 85억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8년의 61억원보다 40%가 늘어난 것이다. 또한 학자금 연체율도 3.8%로 전년 3.5%보다 0.03%포인트 상승한 것은 물론 전국 평균 연체율 3.3%를 훨씬 웃돌았다.

이 같은 학자금 연체 급증은 대출이자 부담이 커져서다. 지난해 대출금리는 5.8%로, 국고채 금리 4.5%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올해는 대출 금리(5.7%)와 국고채 금리(4%) 간의 격차

가 더욱 벌어졌다.

학자금 연체는 비단 높은 이자 때문만은 아니다. 지역경제의 장기침체와 갈수록 심화하고 있는 청년 취업난도 학부부와 대학생들의 학비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특히 연간 1천만원을 육박하는 등록금은 이들의 허리를 더욱 휘게 하고 있다. 취업난에, 학자금 연체까지, 그 어디에도 지역 대학생들의 활로(活路)가 보이지 않는 형국이다.

대학생들이 학자금 때문에 사회에 첫발을 내딛기 전에 신용 불량자로 전락한다면 건강한 사회가 아니다. 교육의 공공성을 고려할 때 정부가 추가적인 부담을 안고 금리의 일부분을 보전해주는 방식으로 ‘연체의 늪’에서 벗어나게 해줘야 한다. 이와 함께 살인적인 등록금 인하와 대학생 취업 활성화 등 근본적인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할 것이다.

## 심각한 농어업 재해, 정부는 방치만 할 건가

올들어 잦은 눈·비에다 저온 현상으로 인해 농어민들이 큰 피해를 입고 있다. 그러나 농작물 등에 대한 재해 보상 규정은 허술하기 짝이 없어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나주 배와 광양 매실, 순천 복숭아, 영암 무화과 등은 개화기에 심각한 병해를 입었는데 수정을 돕는 벌들의 활동이 저조해 생산량이 40~60% 가량 감소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수박과 딸기 등 일부 작물도 일조량 부족으로 착과가 되지 않는 등 피해액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보리 생육도 크게 떨어져 70% 이상의 생산량 감소가 우려되며 논을 갈아엎는 농민들이 줄을 잇고 있다. 천일염 생산 역시 크게 줄어 어민들이 울상을 짓고 있다. 신안 천일염 생산량은 지난해 4월 5만t에 달했으나 올해는 1만 4000t에 불과해 70%나 감소했다.

이처럼 농어민들이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으나 고충을 덜어줄 근본 대책은 찾아보기 힘들다. 농어업재해대책에는 가뭄이나 풍·수해, 병해, 병충해 등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지원할 수 있도록 돼 있지만 일조량 부족에 따른 피해 보상 규정은 없는 실정이다. 또한 농작물 재해보험도 품목이 한정돼 있는데다 비싼 보험료 부담 등으로 농민들이 가입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와 한나라당이 올 하반기부터 농작물 재해보험 적용 대상에 딸기와 참외 등 5개 작물을 추가하기로 했으나 아직도 개선해야 할 점이 적지 않다. 무엇보다 보험대상 품목을 모든 농작물로 확대하고 국고 보조를 늘려 자부담 비율을 획기적으로 낮춰야 한다. 아울러 농어민들이 최소한의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농어업재해보상법 제정 등도 서둘러야 할 것이다.

## 민주 화순군수 후보 구충곤 전략공천

### 전완준 옥중 출마... 3파전 지각경선 합평 오늘 결정

민주당은 7일 화순군수 후보에 구충곤(사진) 전남도의원을 전략공천했다.

민주당 최고위원회의는 이날 화순군수 후보 공천에 대한 심의를 갖고 단수 추천된 구충곤을 최종 후보로 확정했으며 당무위도 이를 의결했다. 민주당은 당초 경선을 통해 전완준 화순군수를 공천자로 확정했으나 전군수가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구속됨에 따라 구충곤을 전략공천했다.

전 군수는 이날 성명을 통해 옥중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다. 이에 따라 화순군수 선거는 민주당 구충곤 후보와 무소속 전완준, 임호경 후보간 3



파전으로 치러지게 됐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도 무안군수 후보 선정을 매듭짓지 못했다. 현재 민주당은 서삼석 현 군수와 정해준 예비 후보를 놓고 전략공천 여부를 고심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후보등록 마감일까지는 아직 시간이 있으므로 경선을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도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날 민주당은 함평군수 후보 선정을 위해 김성호·안병호 예비후보를 대상으로 ‘당원 50%+주민 50% 여론 조사 경선’을 실시, 8일 발표할 예정이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강운태 국회의원직 사퇴 예비후보 등록

강운태 민주당 광주시장 후보가 7일 국회의원직을 사퇴하고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강 후보는 이날 민주당 당무위원회에서 광주시장 후보로 최종 확정된 뒤 국회에 의원직 사퇴서를 제출했다. 강 후보는 이날 오후 광주시선관위를 방문해 후보등록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강 후보는 오는 9일 광주 서구 농성동 선거사무실에서 통합선거본부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할 예정이다.

한편, 강 의원의 국회의원직 사퇴로 광주 남구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오는 7월28일 실시된다.

후보로는 양영일 전 의원, 정동채 전 문화관광부 장관, 지방문 전 의원, 장병완 호남대 총장, 유동국 강운태 후보 캠프 총괄본부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柳濟喆		논설주간 申滄榮	편집국장 曹茂完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우편번호 501-71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www.kwangju.co.kr			
편집국내선 <대표 FAX> 222-4918	사회 2부 2200-692 <F A X> 227-0118	경영지원국 2200-511 <F A X> 222-8005	문화홍보국 2200-541 <F A X> 222-0195
편집부 2200-672	문화생활부 2200-661	광고매케팅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정치부 2200-634	여론제작부 2200-679	<F A X> 227-9500	<F A X> 227-9500
경제부 2200-641	체육팀 2200-663	디자인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사회1부 2200-612	사진부 2200-691		<F A X> 02-773-9335
<F A X> 222-4267	조사부 2200-571	※구독료 월정 10,000원 /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빛의만평

- 김중두



뛰리는 행복지수는 안뛰고...

## 꼬리무는 민주당 경선 뒤탈

### 광주 서구 시의원 경선도 무효

법원이 민주당의 지방선거 후보 경선 결과에 대해 속속 무효결정을 내리고 있다. 광주지법 민사10부(부장판사 선재성)는 7일 민주당 광주 서구 제3선거구 시의원 후보 경선에 나선 김성숙 예비후보가 민주당 광주시당을 상대로 낸 송용욱 예비후보의 ‘당선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법원이 광주·전남의 민주당 지방선거 경선 과정에서의 효력정지 가처분을 받아들인 것은 전남 진도군수와 광주 남구 시의원 후보 경선에 이어 3번째다.

김 후보는 또다른 후보인 박금자 예비후보를 상대로 ‘경선후보가 자격 부존재 등 확인에 관한 본안소송’도 내놓은 상황이라서 판결 결과가 주목된다.

재판부는 지난 2006년 탈당 이후 복당 절차를 밟지않은 박 후보가 경선에 참여함으로써 송 후보가 당선된 지난 1일 경선은 무효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민주당이 비(非) 당원 신분인 박 후보를 3인 예비후보 중 한 명으로 경선에 참여하게 한 것은 중대한 하자”라며 “당시 경선에서 배제된 김 후보가 경선에 참여했다면 결과가 달라질 개연성이 있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 광주시당은 송용욱, 김영남, 박금자 예비후보를 경선 후보자로, 김성숙 예비후보를 차순위 후보자로 결정하고 지난 1일 후보자 3명을 대상으로 경선을 해 송 후보를 최종 후보자로 결정했다.

한편, 재판부는 민주당 나주시장 후보 경선에서 탈락한 강인규 예비후보가 ‘유령당원’으로 인해 당원여론조사에서 패했다며 신청한 효력정지 가처분은 기각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